이색 디저트를 대접합니다

17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로비에서 열린 '커먼키친 스윗스팟'에서 유병서 작가가 무염버터 등 식재료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커먼키친 스윗스팟' 요리 시연행사

유병서 작가 이동 주방 퍼포밍
방탄커피·호밀 빵 직접 조리
관람객 28명에 나눠줘
20일까지 오후 4시~6시 행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우유는 전국에서 단 한곳에서만 생산하는 유기농 목초우유입니다.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100% 목초만 먹인 소가 만들어낸 우유예요. 특히 오늘 준비한 생유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데 업체를 통해 특별히 구했습니다."

케이크, 마카롱 등 다양한 디저트가 현대인들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분자요리(음식의 질감 및 요리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매우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창조하는 것)를 응용해 만든 이색 디저트의 요리과정을 관람하고 맛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문화창조원 로비에는 조그마한 테이블로 만든 키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요리를 하는 유병서 작가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유 작가는 요리사는 아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이론을 전공한 그는 다양한 영상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트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아트 스타 코리아'의 파이널까지 올랐다. 현재 ACC가 운영중인 'ACT창제작센터 오픈랩(Open LAB) 프로그램'에도 참여중인 그는 평소 관심이 많은 요리를 주제로 '커먼키친 스윗스팟(Sweet Spot)' 행사를 준비했다. 유 작가는 전당 공간을 옮겨다니는 이동식 주방 퍼포밍을 선보이며 요리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오후 4시~6시 ACC 문화창조원 로비와 라이브러리 파크 라운지에서 열린다.

유 작가는 "저만의 요리경험과 음식에 관한 철학을 다양한 관객들과 나누며 소통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음식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지 듣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기회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커먼키친 스윗스팟'에서는 방탄커피부터 그릭요거트 등 이색 디저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자리에서 보고 직접 맛도 볼 수도 있다.

이 날 행사에서 유 작가는 '방탄 다이어트'로 알려진 데이브 아스프리와 인기 다큐멘터리 연작인 '요리를 욕망하다'의 주인공 마이클 폴란 교수의 레시피를 선보였다. 또 분자요리를 응용해 만든 방탄커피 아포가토, 호밀 빵, 올리브 오일 샤베트 등과 같은 음식을 조리해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유 작가는 "데이브 아스프리의 책 '최강의 식사'를 보고 책에 나온 다이어트 식단이 구현가능한지 궁금했다"며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원두로 만든 커피에 올리브오일과 무염 버터를 넣고 핸드믹서로 갈아 만든 방탄커피를 직접 시연했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요리를 욕망하다'는 각 회마다 불, 물, 공기, 흙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리의 조리법을 소개하고 우리가 접하는 음식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큐를 보면 빵은 오직 물과 소금, 밀가루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방문했지만 선착순으로 참여한 28명만이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양예리(여·29)씨는 "특이하고 생소한 음식과 요리법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커먼키친 스윗스팟'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사에 사용된 재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박미숙 작 '영혼의 소리'

김연화 작 '날 수 있을 것같아'

김연화·김영란·박미숙…조각·서양화 3색 전시회

진한미술관 31일까지 초대전

'3인 3색 전시회.'

조각가 김연화, 서양화가 김영란·박미숙 3인 초대 전시회가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동구 중앙로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진한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연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브론즈, 석고, 돌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한 인물상과 추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홍석(紅石)으로 제작해 주황색 빛깔의 신비로움과 무늬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린 '날 수 있을 것같아'는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포착했다. 또 다른 작품 '설레임'과 '태양을 향해'는 석고와 브론즈를 사용해 여성의 곡선미를 묘사, 색다른 느낌을 준다.

3년여 전 오랫동안 운영하던 미술학원을 접고 본격적으로 작업에 돌입한 김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프랑스 C,T.E. 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박미숙 작가의 작품은 따뜻한 색감으로 안온함을 준다. 동화 일러스트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작품에는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영혼의 소리' 연작은 새와 나무 등을 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요소를 만날 수 있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25편의 외국 창작동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월간지 '좋은 만남'의 표지 일러스트 작가로도 활동했다.

김연화 작가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함께 화가를 꿈꿨던 김영란 작가는 계절의 변화를 다양한 나무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원색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나무들이 인상적인 작품들로 사계절의 풍광을 풍부한 상상력을 가미해 표현해냈다. 문의 062-222-00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원의 낭만' 신년맞이 풍물놀이 한마당

2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행복한 문화 충전 제92회 천원의 낭만 아리솔이 평화의 소리 '신년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사진〉을 준비했다.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신년맞이 풍물놀이 한마당'은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한다. 올해 첫 공연인 이번 공연은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 소속의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이 문을 연다.

두드리는 우도 농악뿐만 아니라 웃다리 농악, 채상 판굿, 사물놀이, 모듬북, 대고, 부포놀이, 승무북, 전통연희마당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및 공연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2016년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을 창단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우도 농악을 선보이며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천원의 낭만은 채상 설장구를 시작으로 소고놀이, 사물놀이, 버나, 사자놀이, 줄공 등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입장료 전석 1000원. 문의 062-226-2032.

/전은재기자 ej6621@

호주 철학·인문학 잡지 '뉴필로소퍼' 한국판 창간

호주에서 2013년 창간된 계간 철학·인문학잡지 '뉴필로소퍼'(NewPhilosopher) 한국판이 창간됐다.

'뉴필로소퍼'는 매일매일의 삶을 성찰하는 생활철학잡지를 표방하며 매 호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관통하는 글들을 싣고 있다. 호주에서는 자유, 행복, 노동, 여행 등을 주제로 18권이 발간됐다.

한국판 창간호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너무 많은 접속의 시대'다. IT(정보기술) 미래학자인 니컬러스 카,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인 마리나 벤저민, 뉴필로서퍼 부편집장 앙드레 다오 등의 글과 함께 국내 필자로는 문화평론가 김민섭, 정치철학자 김만권, 철학자 최훈 등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쓴 글을 실었다.

'뉴필로소퍼' 한국판은 과학잡지 '스켑틱', 여성잡지 '우먼카인드' 한국판을 펴내고 있는 바다출판사에서 발행한다. 독립성을 중시해 창간 때부터 광고없는 잡지로 발간되는 영어판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도 일체의 광고 없이 발간된다. /연합뉴스